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홍해작전 세부계획 확정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홍해작전 참모본부는 "2000년 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 운동"을 주제로 한 이 작전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하여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힘을 다해 절제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자라는 실천 강령을 정하고 홍해작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주요행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5월 13일 저녁 7시 찬양예배 때에는 참모 임명식을, 20일과 27일에는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갖는다. 6월 3일 저녁 7시 찬양예배 때에는 진군예배를 드려 이 작전의 성공을 다짐하게 된다.

홍해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일부터는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에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즉 개인적으로는 오직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원리로 삼고 가정 채신을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교육·선교·구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세상과 역사 앞에 소망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비성경적인 사회악이 추방되고 비신앙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그릇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고 복음으로 조국이 통일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

진군 첫날인 6일에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 주변(역삼역, 선릉역, 강남역 : 교회학교 주관)의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봉사하여 천국시민의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교회상과 가치관을 확립코자 하는 이 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진군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또한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절제와 봉사에 관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본당에서 천국 시민 영성 잔치를 개최하는데, 이 잔치를 통하여 충현 가족들은 성숙한 천국시민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홍해작전을 실시하는 기간을 교회 차원에서 절제기간으로 삼아, 과소비 사치 풍조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나눔의 센터를 운영하여 절약정신과 물품 재활용의 습관을 배우도록 한다. 이 나눔의 센터는 작전이 끝난 후에도 구제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15일에는 해 있는 동안 전교인이 금식을 하게 되며 주일인 17일에는 I, II, III, IV부 예배 때에 이 작전 기간 동안의 절제와 금식으로 인한 절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예정이다.

한편 6일과 17일을 총동원의 날로 정하여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홍해를 건널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

마지막날인 20일에는 그 동안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해오던 사랑의 집 건축 기공식을 갖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새긴 돌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자 하는 충현성도 의지를 천명하게 된다.

한편 참모본부는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하여 전교인이 부를 수 있는 홍해작전 노래의 가사와 이번 작전의 주제에 맞는 성도들의 미담이나 신앙 간증 수기를 공모한다. 뜻이 있는 성도들은 5월 20일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생활에 일대 개혁을 불러 일으키게 될 제3차 홍해작전에서의 승전을 위하여 기도로서 준비하며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 고통과 수고의 짐보다는 안일과 영광의 길만 찾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논법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당에서는 전국에서 모여 오신 2천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민족과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르게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영접하고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교회의 입장으로는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당회는 기동력 있게 영접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각 분야별로 점검을 거치 마침내 교회 전체에 출동 명령이 내려지자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 동안 홍해작전을 통한 영적 각성과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한 전사들답게, 그리고 제자훈련을 거치 잘 연단한 특수부대원들처럼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모여 오신 교계 지도자들의 끝없는 찬사와 감사를 받으면서 충현교회의 목사님 행복감에 감사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풍평하심을 범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성도들로 하여금 저의 부족을 채워 주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일에 동참하신 성도들은 물론 충현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교회가 복음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 5. 13

이 중 윤 목사

홍해작전 일정

기 도 제 목

가. 개 인

나. 교 회

다. 사회와 국가

천국시민 생활 운동 실천 강령

교회 부흥을 위한
90년도 전도운동 전개키로
5월 13일부터 11월까지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는 성도들

개고, 새가족부는 영성교육을

에게 전도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

회의 부흥을 위하여 오늘(5월 13

일)부터 11월까지 전도 운동을

전개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

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가복

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교구,

전도회, 교회학교, 스테반회, 권

사회는 자체적으로 노방전도, 총

력전도집회 등 전도를 위한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성도

한 사람이 새신자 한 명 이상씩

을 결신하게 하여 교회에 등록시

키고, 새가족부는 영성교육을 실

시할 예정이다.

교역자와 장로들은 오늘 오후

4시에 고속터미널로 노방전도를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

라 충성된 증인으로서는, 민족의 소

망인 통일 조국의 달성은 복음 전

도의 실천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

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

과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게 될 이

전도 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

하여 교세가 배가되는 역사가 일

어나길 바란다.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요 8:57-59)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역사와 우주를 변혁시키고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다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하고 상관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제시해 주는 요긴한 구절입니다.

1.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십니다.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요 8:57-59).

58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아주 다른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에고 에이미(I am: 나는-이다)’라는 존재의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나는 나다”(I am that I am.) 라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같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는 말은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하나님이이다. 나는 엘로힘이요 너희의 주가 된다.’라는

키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왔다’(마 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4:19).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심판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신 언약도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떠나서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했습니다(요 5: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 필박받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요 8:59)

대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혹은 성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죄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 혜택을 못 받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초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한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요 20:30, 31)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교훈도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아니며, 그 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가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主)가 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신학자나 철학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오십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막 1:15). 그 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눅 17:21).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0:30).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7:1).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37; 요 8:19, 12:44, 45, 14:1, 9).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고

으면 우리의 생명줄은 끊어지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과 결별은 빛으로부터의 결별이요, 어둠의 생활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 필수적인 생명수, 빛, 생명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내 버려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순간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은 첫째, 의를 떠난 나라요, 둘째, 첫사랑을 떠난 교회요, 셋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없이 멋대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버렸는데 우리는 오늘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날 불쌍한 영혼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의 그루터기가 됩시다.

제3회 충현부부교양대학 개강

충현부부교양대학에서 주최하는 제3회 충현부부교양강좌가 지난 5월 8일 갈릴리홀에서 개강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이기주의에 물들어 찌들어 가고 있는 이때에 성숙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른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올바른 생활”이라는 주제하에 네 주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 개설 첫날이기도 한 8일에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육”에 대하여 강의를 했으며, 앞으로는 “그리스



도인의 소비생활”(이기춘 박사), “그리스도인의 가정”(신상철 박사),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이근후 박사)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런 강의뿐 아니라 교제의 시간과 김연이 전도사가 지도하는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권사회 신입회원 환영회 및 월례회 가져

우리 교회 권사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에 갈릴리 홀에서 3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회원 환영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윤용규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권사들이 직접 정성껏 만든 꽃을 제34대 신입회원들에게

달아주며 교제를 나누었다. 한편 5월 2일에 있었던 권사회의 정기철야기도회 때는 최복례 집사(월남한 김만철씨 부인)를 초청하여 간증을 들으며 북한도 하루속히 북을화해 될 수 있기를 간구했다.

목회자세미나 제5학기 개강예배 드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이 주관하는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제5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5월 7일 오후 2시 갈릴리 홀에서 있었다.

629명의 전국 목회자들이 등극한 제5학기는 에베소서 강해(이종윤 위임목사), 성경해석학(유영기 교수), 구속사적 성경연구(김의원 교수), 교회성장과 목회 비전(김전도 목사), 목회의 신학적 기초(한철하 교수), 신약연구 방법과 실제(정원태 교수), 구약연구 방법과 실제(김정우 교수), 목회자란 누구인가(박종렬 목사),

주석적 성경연구(이진태 교수), 목회자의 가정생활(이연옥 박사), 목회자의 자기 관리(정진경 목사) 등 목회자와 성경연구에 대한 강의가 7월 9일까지 있게 된다.

교인 차량스티카 발급

우리 교회는 뱃바게 광장(옥외 주차장)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신 곳, 눅 9:29 이하)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스티카를 발급하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 사무국에 등록을 하면 이 스티카의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 '90 경로잔치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와 청년 1, 2부가 함께 마련한 경로잔치가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 갈릴리 홀과 만나 홀에서 베풀어졌다.

이종윤 위임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오찬의 시간과 노인의 건강 관리에 관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아부 어린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찬양과 율동을 하는 재롱 잔치를 벌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숨은 장기를 발휘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제자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천국일꾼이 되자”라는 주제로 아래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90년도 충현제자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5월 5일을 기준으로 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자훈련을 이수한 직분자는 3,603명 가운데 모두 1,402명으로서 직분자 총체적의 39%만이 이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측은 제자훈련 이수 여부를 다음년도 직분자 임명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등은 앞으로 두번(17일과 18일, 24일과 25일) 남은 제자훈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것이다.

■ 지원교회를 다녀와서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처럼

서 화 자 집사

우리 교회 에스더여전도회 제 13지회는 지난 4월 23일 지원 교회인 당진 제일교회(충남 당진군 당진을 읍내리)를 방문했다.

교회로 안내된 박윤석 권사님과 6명의 일행은 뜻밖의 교회 모습에 놀랐다. 지원 받는 교회라 조그맣거나 아니면 세를 얻어 예배드리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넓은 터에 성전 건축을 위한 골조가 우뚝 세워져 있었고 당진 제일교회라는 커다란 플랭카드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공사 중인 건물의 지하실이였다. 당진 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정재 목사의 안내로 지하 예배실로 들어갔다.

“현장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다가 귀한 손님들께서 오신다기에 모양내고 나왔습니다.”라며 말문을 여신 김 목사님께서 교회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김 목사님은 86년 10월에 당진을 읍내리에 교회 현관을 열고 개척을 시작하셨다. 성전 건축을 위해 은행에서 받은 용자와 공사비를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하여 8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중 천 5백만 원을 5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도 김 목사님께서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김 목사 망신이야 시키시겠습니까. 어디엔가 준비하고 개설 집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골조만 세워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라 비가 오면 지하 예배실에 물이 차서 의자가 잠기게 되는데, 3백만 원이 있어야 두걸을 덮을 수 있다고 하시며 쓸쓸해 하셨다. 개척 이래 타교회 지원 받는 것이 처음이라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며 감격해 하였고, 이번 방문이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다고 고마워하셨다. 경제적인 시달림으로 인해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시며 그저 하나님께만 매달리신다는 말씀에 우리 일행은 마음이 찢기듯 아팠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다며 목사님 내외분을 위로했다. 정말로 오늘처럼 자신의 경제적 부력함을 안타까워해 본 일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 원로 목사님 행정을 닮으신 목사님의 참 믿음과 열심과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봉사에 우리는 눈물로밖에 보답할 수가 없었다.

김 목사님께서는 장년부가 15명, 유년부가 10명, 학생회가 8명이 전 교인인 이 교회에서 지난번 건축현금으로 2백만 원이 바쳐졌다고 감사해 하셨다.

기념으로 준비해 간 대형 거울을 예배실 입구에 걸어 드렸다. 목사님 내외분과 기념 촬영을 하고 밖으로 나와 교회를 다시 바라보니 양상한 골조 건물이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선 십자가처럼 보였다. 저 십자가로 인해 이 주위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기도했다. 제일교회 근처에 다른 교회가 없고 고층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무난히 부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루 속히 완공되어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이 병든 자, 세상 접진 자들이 힘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찬양대의 자세



김 천 채 장로

찬양대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노래하는 제사장이다. 교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품는다면 그것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오직 충성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훌륭한 찬양은 충만한 연습에서 비롯된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일에 행해지는 연습에 충실

히 임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신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우수한 찬양대가 되는 지름길이다.

찬양대원으로서 최선의 봉사는 출석하는 일이고, 최악의 봉사는 결석이다. 찬양대원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못하는 것은 설교하는 목회자가 강단을 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결석이나 지각은 무결서한 생활의 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찬양대의 신앙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을 아울러 감독해야 할 찬양대 대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나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원할한 지원과 찬양대의 육성을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선행임부이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대원들은 가장 성실한 자세로 찬양 연습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잡담과 같이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 행동은 서로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독창자들이나 기악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음악적 자질이

아니라 성실한 봉사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불성실한 봉사는 다른 대원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중에 부를 찬양곡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악보에 얽매인 찬양은 듣는 성도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원 자신이 악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아무런 감동없이 무표정한 찬양을 부르기 때문이다.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선 성공적인 찬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시선이 집중된 찬양은 아름답다. 청중은 청각뿐 아니라 시각을 통하여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찬양의 음악적 해석과 악상의 표현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원 모두가 찬양의 가사를 깊이 음미하고 음미된 가사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다음호 세가들은 김영재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간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임 정 우 집사

나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순회 목사로 전국을 다니시면서 부흥 설교를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할아버지에게서 모태신앙을 물려 받았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총명함을 주셨기에 국민 학교에서 대학까지 명문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시절에는 교회봉사도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 없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돈도 조금씩은 벌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교회 결석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내 눈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적게나마 능력껏 꾸려나갔던 사업을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거두어 가시고 6개월 후에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상황에 다다르니 절망감과 실망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도저히 살아 갈 희망이 없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이 깊이 들리지도 않았다. 눈을 뜨면 세상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고, 눈을 감고 잠이 들면 영원히 깨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웠던 것이었다.

그러한 나를 보고 이전에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임 선생님, 회개하고 하

나님께로 다시 나오시지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일단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굴복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꾸하고 다 돌려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깨우기에 일어나보니 내 앞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 있는 양철통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양철통 밑에서는 곧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양철통 벽 한쪽에는 미꾸라지가 겨우 빠져 나갈 만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커다란 연못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잠시 후, 곧 불을 피울때니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넓은 연못으로 나가려는 음성이 들렸다. 나는 "만약에 불을 피워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라면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다 눈을 떴다. 한밤에 잠이 깨었으니 잠도 오지 않고 해서 꿈에서 있었던 일을 꼼꼼히 생각해 보고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친구들을 찾아가 의논해 보리라.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 재벌 아들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그리고 친했으니까 내 부탁쯤이야 들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절망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찾아간 친구들은 옛날의 그 친구들이 아니었다. 더욱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는 것과 실패한 후에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달랐다. 냉담한 그들의 모습과 서로들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던 그들의 대답 속에서 나는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이 캄캄해진 나는 잘가라는 친구의 인사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친구의 회사 정문을 나서면서, '재벌 아버지를 둔 저런 친구들은 참 좋겠군. 실패가 무엇인지, 좌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꿈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그 순간 다시 들려 왔다. 꿈 속에서가 아니라 재벌 그룹 회사 건물 현관 앞에서 말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크고 위대함을 모르고 친구 아버지의 보잘 것 없는 재산만 눈에 보이느냐."라는 그 음성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멀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아직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나는 반신반의 하면서 집에 돌아 왔다. 그리고 세상 친구는 찾아 갈 것이 못된다고 다짐을 했다.

다시 밤이 되었다. 근심, 걱정, 애써인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눈을 떠 창문 쪽을 보니,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는 국민학교도 다니지 않던 어린 자식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곤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그 아이들을 보자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사

람들이 많이 다니는 평화문 네거리 한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까." 그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렇다."라는 대답이 우렁차게 들려왔다. 몇 시나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자꾸자꾸 하나님을 부르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동이 트고 아침이 왔을 때는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남의 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내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예배드릴 때 찬송이 너무 은혜롭고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나에게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기도였다.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자랑치 말라. 법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라.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제2교구

홍해작전 위한 가족모임 갖기로

제2교구는 오는 5월 19일(토) 저녁 6시 판나 홀에서 제3차 홍해작전을 앞두고 전체가족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단합된 힘을 모아 홍해작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홍해작

전에 대한 설명회와 기도회 및 지역·구역 모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족모임을 주최하는 제2교구 남녀전도회는 온 교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홍해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은혜중에 마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총회장 이성택 목사)가 주관하여 지난 5월 7일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제27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나흘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경향 각지에서 2천 명이 넘는 본 총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한 이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교단에 5천 교회, 2백만 성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교단과 총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회가 회집되는 동안 목사와 장로들이 기도예 전담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설 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누구든지 이 계명을 자위하여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은혜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이렇게 사는 생활 자체가 한없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 문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출 6:6,7)?
2.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어떠한 장소와 같다고 했습니까(신 4:20)?
3. 우리는 어떻게 죄와 사망 속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까(벧전 1:18, 19)?
4.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율법)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요 14:15, 21, 23)?

성경다락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0과 십계명의 서문

성경: 출 6:6,7

요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찬송: 183, 194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하신 것입니다(출 20:2).

제44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수 24:18).